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정미라*, 정은**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Mi-Ra Jung(kcc4977@hanmail.net)*, Eun Jeong(jwon8045@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학점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5%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 | 자기효능감 | 만족도 | 간호 | 대학교 | 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ces on grit in the nursing stud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6 nursing students in the H university located Y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0.0 program. Grit was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stress and grade point average predict 22.5% of gr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 keyword : | Self Efficacy | Satisfaction | Nursing | Universities | Student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생활 및 성인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비인지적 특성의 그릿(Grit)이 주목받고 있다[1]. 그

릿(Grit)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한다[2]. 국내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릿(Grit)을 빈번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끈기[3], 또는 투지[4]로 빈번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

접수일자 : 2018년 04월 30일

수정일자 : 2018년 05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15일

교신저자 : 정은, e-mail : jwon8045@hanmail.net

어 그대로 그릿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릿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며, 뛰어난 성취를 달성한 사람의 경우 그릿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5]. 또한 그릿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업지속의향[6]과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은 57.7%로 높게 나타났다[7]. 특히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중등도 이상이며,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학업스트레스로 보고되고 있다[8][9]. 간호대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간호하는 학문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병행,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0][11]. 간호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의 조절 전략 및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그릿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과정을 성과 중심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2].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습동기의 원천인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축진의 주요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어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닦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노력으로 끈기있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릿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수준과 개인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평가정도를 의미한다 [1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6][17].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17][18] 반면, 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낮은 성적, 대학생활 부적응 등이 휴학 및 자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뿐 아니라 나아가 간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적 끈기와 장기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관련된 변인으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학업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4][10][20][21]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제 변수간의 관계를 통합해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그릿의 중요성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업에 대한 인내와 열정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방대한 분량의 학업과 임상실습을 지속시킬 열정과 끈기를 평가함에 있어 장기적인 목표 성취에 그릿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관련된 그릿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로써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것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것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것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그것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그것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서면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총 146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정력($1-\beta$) .80, 예측요인 11개로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였을 때, 123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탈락율 20% 이상을 고려하여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46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자 16명(11.0%), 여자 130명(89.0%)이었고, 연령은 20세 38명(26%), 21세 29명(19.9%), 22세 38명(26%)이며, 23세 이상이 41명(28.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1학년 43명(29.5%), 2학년 43명(29.5%), 3학년 37명(25.3%), 4학년 23명(15.8%)이며, 학점은 평균 3.0점-3.9점이 110명

(7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79명(54.1%), 적성과 취미 35명(24.0%),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 30명(20.5%), 고교성적 2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106명(72.6%), 경제상태는 중이 119명(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희망취업은 대학병원 66명(4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6)

특성	범주	N(%) or M±SD
성별	남	16(11.0)
	여	130(89.0)
연령	20	38(26.0)
	21	29(19.9)
	22	38(26.0)
	23≥	41(28.1)
학년	1	43(29.5)
	2	43(29.5)
	3	37(25.3)
	4	23(15.7)
학점	평균 2.0-2.9	19(13.0)
	평균 3.0-3.9	110(75.3)
	평균 4.0점≥	17(11.7)
간호학과 지원동기	고교성적	2(1.4)
	적성과 취미	35(24.0)
	취업률	79(54.1)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	30(20.5)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26(17.8)
	보통	106(72.6)
	불만족	14(9.6)
경제상태	상	8(5.5)
	중	119(81.5)
	하	19(13.0)
희망취업	대학병원	66(45.2)
	중소병원	44(30.1)
	보건소	26(17.9)
	산업장	4(2.7)
	기타	6(4.1)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응답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것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나이, 학년, 학점,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교생활만족도, 경제상태, '희망취업'으로 구성되었다.

3.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과제 난이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의 3개 영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과 박인영[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3.2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23]이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Bae와 Shin[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3개 영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Schaufeli 등[23]의 연구에서 스페인의 경우 .74-.79, 포르투갈의 경우 .69-.82, 네델란드의 경우 .67-.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김계현과 하혜숙[15]이 개발한 도구를 이동재[2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5문항, 인식만족 4문항, 교과만족 6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 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계현과 하혜숙[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4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6]이 개발

하고 이정립과 권대훈[2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력지속성 5문항, 흥미일관성 4문항의 2개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Duckworth와 Quinn[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8-.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였다. 먼저 대학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쉬는 시간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고, 완성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용 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신뢰도 계수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릇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점수는 2.30±0.52점, 하위영역별로 정서소진 2.56±0.78점, 효능감 감소 2.31±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64±0.43점, 하위영역의 자기조절 3.96±0.65점, 과제난이도 3.47±0.53점, 자신감 3.46±0.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평균점수 3.76±0.53점, 하위영역 인식만족 4.08±0.61점, 일반만족 3.63±0.6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릇의 평균점수는 3.18±0.41점, 노력지속성 3.20±0.41점, 흥미일관성 3.15±0.5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릇의 정도 (N=146)

변수	범주	최소값	최대값	M±SD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범위:1-6점)	2.32	4.82	3.64±.43
	과제난이도	2.10	4.80	3.47±.53
	자기조절	2.00	5.10	3.96±.65
	자신감	1.50	5.63	3.46±.95
학업 스트레스	전체 (범위:1-4점)	1.13	3.73	2.30±.52
	정서소진	1.00	4.00	2.56±.78
	냉소주의	1.00	4.00	1.94±.82
	효능감 감소	1.00	4.00	2.31±.65
전공 만족도	전체 (범위:1-5점)	2.44	4.89	3.76±.53
	일반만족	2.17	5.00	3.63±.63
	인식만족	2.50	5.00	4.08±.61
	교과만족	2.00	5.00	3.50±.71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2.00	5.00	3.66±.75
그릇	전체 (범위:1-5점)	2.25	4.17	3.18±.41
	노력지속성	2.13	4.25	3.20±.41
	흥미일관성	1.50	4.75	3.15±.52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릇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그릇은 학점(F=6.55, $p<.002$), 희망취업(F=2.64,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평점 4.0점 이상은 평점 3.0-3.9점과 평점 2.0-2.9점 보다 그릇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릇의 차이

(N=146)

특성	범주	M±SD	t/F(p) Scheffe
성별	남	3.22±.44	0.46(.645)
	여	3.17±.41	
연령	20	3.07±.37	1.27(.286)
	21	3.25±.44	
	22	3.23±.45	
	23≥	3.19±.39	
학년	1	3.10±.38	0.75(.524)
	2	3.23±.39	
	3	3.21±.46	
	4	3.17±.42	
학점	평점 2.0-2.9	3.14±.42c	6.55(.002) a>b,c
	평점 3.0-3.9	3.13±.37b	
	평점 4.0점≥	3.51±.50a	
간호학과 지원동기	고교성적	2.95±.76	1.88(.135)
	적성과 취미	3.32±.39	
	취업률	3.13±.41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	3.16±.4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3.27±.33	2.69(.071)
	보통	3.18±.42	
	불만족	2.96±.43	
경제상태	상	3.29±.69	0.65(.521)
	중	3.18±.38	
	하	3.10±.45	
희망취업	대학병원	3.24±.43	2.64(.036)
	중소병원	3.02±.39	
	보건소	3.29±.37	
	산업장	3.20±.17	
	기타	3.15±.42	

3.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릇 간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그릇은 학업스트레스($r=-.049$, $p<.001$)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r=.361$, $p<.001$)과 전공만족도($r=.378$, $p<.001$)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r=-.383$, $p<.001$)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r=.375$, $p<.001$)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 간의 상관관계 (N=146)

변수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그릿
	r(p)	r(p)	r(p)	r(p)
학업 스트레스	1			
학업적 자기효능감	-.362 ($<.001$)	1		
전공 만족도	-.383 ($<.001$)	.375 ($<.001$)	1	
그릿	-.049 (.559)	.361 ($<.001$)	.378 ($<.001$)	1

4. 그릿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는 0.85에서 0.97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1.28의 범위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7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그릿에 학점($\beta=.16, p=.036$),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8, p=.001$), 전공만족도($\beta=.34, p<.001$), 학업스트레스($\beta=-.19, p=.026$)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22.5%였다($F=9.40, p<.001$).

표 5. 그릿의 영향요인 (N=146)

변수	B	SE	β	t	p
(상수)	.48	.440		1.10	.001
학점	.13	.062	.16	2.12	.036
학업적 자기효능감	.26	.080	.28	3.31	.001
전공만족도	.26	.065	.34	4.11	.001
학업스트레스	-.14	.065	-.19	-2.25	.026
F=9.40, p<.001, Adjusted R2= .225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그릿은 3.18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 노력지속성 3.20점, 흥미일관성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그릿을 측정한 이승주와 박주영[10]의 연구에서 평균 3.31점과 하위영역의 노력지속성 3.36점, 흥미일관성 3.27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과 교내실습만을 경험한 전 학년을 포함하였고 선행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내실습만 경험한 간호대학생들보다 3, 4학년 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교내학습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에 대한 흥미가 더 유발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끈기가 있으며, 실패, 좌절 등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간호대학생에서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대학생활 적응이 수월하여 중도탈락률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 그릿의 중요한 특성은 목표의 지속성 즉, 간호대학생들은 국가고시의 합격 후 희망하는 병원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릿의 하위영역인 노력지속성과 흥미일관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프로그램과 취업 후에도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릿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그릿이 간호대학생에서 학점이 평점 4.0점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를 달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다[27].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은 높은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5]. 또한 양경미[28]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였으며, 그 중 전공만족도는 대상자의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은 많은 학습량 및 잦은 시험과 임상실습 병행으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그릿은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특히 간호교육의 목표와 학습성과를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교수학습법 적용 후 전공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9]. 따라서 자신이 세운 장기목표달성의 끈기와 열정의 그릿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나아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과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를 달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성혜, 유지원과 유영란[30]의 연구에서 그릿의 촉진 방안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한상춘[5]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은 학업성취를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와 흥미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장기적인 목

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에서 장기적인 목표달성의 그릿 증진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10].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부담감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11], 그릿이 강한 사람은 끈기와 열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달성을 이루며, 이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은 학업문제로서 흥미를 갖고 학업에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릿의 향상과 효과적인 학업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점 이었다. 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2][2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은 미래 국가고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그릿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의 결과 간호대학생에서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면,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완화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릿의 변수를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릿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학점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2.5%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학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다양한 변인을 투입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S. N. Slick and C. S.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8, pp.61-66, 2014.
- [2]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and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pp.1087-1101, 2007.
- [3]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학업적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제18권, 제1호, pp.371-388, 2017.
- [4] 진종임, 김남초, "간호대학생의 투지(Grit), 학업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75-183, 2017.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75>
- [5] 한상춘, *대학생의 그릿(Grit)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6]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대학생의 그릿과 자율성, 마인드셋 그리고 학업지속의향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연구*, 제24권, 제12호, pp.45-69, 2017.
- [7] 통계청 사회조사, "Social Survey Results in 2017.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
- [8] 김종경,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련 문헌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47-59, 2014.
- [9] 차남현,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124-131, 2016
- [10] 이승주, 박주영,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2호, pp.269-276, 2018.
<http://dx.doi.org/10.14400/JDC.2018.16.2.269>
- [11] W. M. Chernomas and C. Shapiro,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0, No.1, pp.255-266, 2013.
- [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php>, 2013.
- [13] K. R. Livsey, "Clinical faculty influences on student caring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Vol.13, No.2, pp.53-59, 2009.
- [14]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15]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7-20, 2000.
- [16] 박현정, 오재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디지털*

융복합연구, 제21권, 제5호, pp.489-500,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17] 최현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68-77, 2017.
<http://dx.doi.org/10.5762/KAIS.2017.18.6.68>

[18] 양승경, 정미라,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11호, pp.613-629, 2016.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1.613>

[19] 장선주, 강미현, 김혜진, “일부 대학생의 전공계열별 학과만족도와 취업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5권, 제5호, pp.317-328, 2015.

[20] 이정림, 권대훈, “통제 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1호, pp.245-264, 2001.
 DOI :10.21509/KJYS.2016.11.23.11.245

[21] 박주영, 우정희, 김주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Grit)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호, pp.165-175, 2018.
 DOI :10.14400/JDC.2018.16.1.165

[22]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제39권, 제1호, pp.95-123, 2001.

[23]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and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pp.464-481, 2002.

[24] 배병훈, 신희천, “자기결정성과 학업 꾸물거림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pp.747-764, 2009

[25]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 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6] A. L. Duckworth and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pp.166-174, 2009.

[27] W. Borton and J. Grelle, “The dirt on grit: Rel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school performance, and theories of intelligenc,” Hanover College, Diambil dari, 2013. <https://psych.hanover.edu/research/Thesis12/papers/Borton%20Grelle%20IS%20Final.pdf>

[28] 양경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2호, pp.445-453, 2017.
<http://doi.org/10.14400/JDC.2017.15.12.445>

[29] 정미라, 정은, “E-book기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제18권, 제2호, pp.490-501, 2018.

[30]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간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제36권, 제3호, pp.47-66, 2017.

저 자 소개

정 미 라(Mi-Ra Jung)

정희원



- 2013년 8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ICT, 웰니스

정 은(Eun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보역량, 교수학습